

地自體 環境行政에 바란다

〈3〉

지도단속시...고려?.....실무경험이 풍부한 환경관리인의 기술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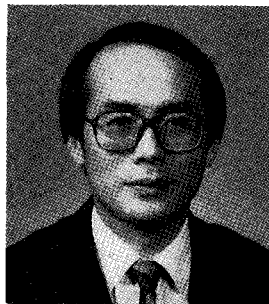
1. 환경관리인들의 설문 조사 이후

본회에서는 작년 8월 중순에서 9월에 걸쳐 지역별로 주로 기업체에 종사하는 환경관리인을 대상으로 환경제반문제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설문분석결과를 본회에서는 92년 11월 회보에 게재하였고 몇몇 일간지 및 전문지도 부분적내용이지만 기사화하여 보도하였다.

광범위한 설문내용이었지만 언론보도의 초점은 기업체 환경설비의 문제점과 환경지도단속의 신뢰도 및 환경정책의 일관성 등의 사항으로 다루어짐에 따라 상당수의 확인전화도 있었고 이해관계에 있어서 불만을 표시하는 분도 다소 접할 수 있었다.

응답자가 지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었다고는 하나 777명에 불과해서 기업체에 종사하는 2만여 환경관리인의 정확한 의식의 표상이라 고집할 수는 없지만 지역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해해서 판단해 주길 바라



張 俊 榮
(본 연합회 회장)

는 바이며 이중 지자체 환경행정과 맞물려 있는 환경지도단속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놓고 외람될지 모르나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환경감시원(환경지도단속 공무원)과 환경관리인

환경감시원과 환경관리인은 가깝고도 먼 관계에 있다. 즉 역할은 각기 다를지라도 환경보전의 목적하에 같은 길을 걸어간다 할 수 있으나 상대적인 관계에 있어 현재 계상 어쩔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관리인은 감시원에 대한 불만족이 증폭될 수 있으며 또한 감시원은 관리인이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설문에서 나타난 불만족의 응답을 취합해서 분류해보면, 지도단속의 전문성 결여(채수방법, 기술적지도 결여 및 행정위주 등), 단속견수위주의 단속(가시적인 실적 등), 권위주의, 관리인책임추궁위주의 단속, 단속자에 따른 법적용의 해석 차이 등등의 내용들이다. 물론 본 내용에 따른 상대적인 불신 내지는 불만의 또다른 소지가 있겠으나 지역환경보전의 대의적인 견지에서 이제는 가로놓인 벽을 하나 하나 허물고 서로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도모하여 나아가 국가 환경보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감히 언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설문조사란 발표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3. 지도단속에 대한 고려

그동안 누차 언급한 바 있지만

현재계상 기업체의 환경관리인의 위치는 기업과 행정관청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도 관에도 미운 오리 새끼격이 되기 십상이다.

설문조사에서도 60%가 타직종으로 이직을 원하고 있는데 대해 (상당수의 관리인이 환경공무원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음) 본인은 이러한 체계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물론 관리인중 재뭇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도 다소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도단속시 가능한한 서로 상대입장을 이해하는 관계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특히 현장에서는 행정적 단속보다는 가능한한 기술적지도위주의 단속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환경기술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현장을 충족 시켜주기란 어렵다. 따라서 본인은 감히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설문조사에서 보면 기업체 환경관리인 중 현장실무 경력이 8년 이상인자가 응답자의 17%정도된다. 이 비율대로라면 기업체 2만여 환경종사자중 3천여명은 환경실무에 상당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같은 업종이라면 최종 방류수만 보아도 폐수처리의 문제점이 어디있는가를 누구보다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기업체의 지도단속시 기술적 지도가 결여된다면 마치 의사가 진



단도 없이 시간을 정해놓고 알아서 병을 고치라는 격이된다(비유가 이상하지만...).

따라서 지도단속시 기술적 지도는 이들의 실무경험이 기여되도록 활용한다면 기업체의 환경기술향상 내지는 오염저감에 실질적인 효과를 얻으리라는 생각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체도 좀더 도움이 되고 지도단속에도 실질적 효과를 거두는 일거양득이 되리라 믿는다. 실제 이러한 형태의 합동 내지는 동반 지도단속을 시행하여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지역은 지도단속에 대한 불만이 설문조사에서 낮게 나타났음은 그만큼 서로의 이해의 폭이 넓어졌으리라는 짐작이 간다.

4. 결론

지도·단속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염저감 및 환경보전에 있다고 본다. 종전보다 단속건수가 많았다가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 환경행정 체계로 전환되어 실질적으로 지역환경이나 산업환경이 얼마나 발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함은 여타 반론이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언론도 지자체 환경행정을 단속건수로만 평가하는 누를 범해서는 안될것이다.

앞서 언급한 고려사안(건의사항?)들은 장·단점이 있겠으나 지자체 환경행정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를 기대해본다. 방법은 서로의 업무에 누가 되지 않은 차원에서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 ◀

‘발언대’는 건강한 소리를 담고 싶습니다.

언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는 ‘발언대’에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편집자>